

2009년 12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867조회)

하찮은 소리
つまらない音

하찮은 소리가 편안하네. 아주 유혹적이야.
つまらない音が氣樂だ。とても誘惑的だ

하찮아도 쓸데없는 건 아닐 거야.
つまらなくても、無駄なことではないのだ

- 김훈의《공무도하》중에서 -
- キム・フンの<公無渡河>より -

* 하찮은 것 속에 귀중함이 있습니다.
* つまらないことの中に、貴重さがあります

하찮은 것을 놓치면 그 귀중한 것도 놓칩니다.
つまらないことを逃せば、その貴重なことも逃します。

하찮은 소리 속에 사랑과 행복, 편안함이 있습니다.
つまらない音の中に愛と、幸せ、氣樂さがあります。

하찮은 소리를 지나치면 그 모든 것도 지나갑니다.
つまらない音が度が過ぎれば、その総てのことも過ぎ去ります。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하찮은 것 속에
尊く、貴重なことほど、つまらないことの中に

다소곳이 감춰져 있습니다.
つましく隠れています。

하찮다
[형용사] ‘하치않다’의 縮約形:つまらない;取るに足りない;大したことでない。

편안 [便宜]

<1> [명사·하다형 형용사] 氣樂なこと;穏やかなこと。

<2> [명사·하다형 형용사] 無事なこと。

놓치다

<1> [타동사] (手から)落とす。

<2> [타동사] (チャンスなどを)逃す;失う;なくす;逸する;はぐれる。

유혹 [誘惑]

[명사·하다형 타동사] 誘惑;誘って心を惑わすこと;悪事に誘い込むこと。

다소곳-이

[부사] 慎ましやかに;うつむいて;おとなしく;柔順に。

小説・エッセイ > 韓国小説 - 공무도하(公無渡河) - 韓国の本

http://www.komabook.co.jp/search/search_detail.php?goods_detail_id=9862&wide_category_id=1

『孤將』、『南漢山城』の著者金勲が綴る海辺の村を背景にしたある男の人生を描く。社会部記者であるムンジョンスは育てた犬にかまれて死んだ少年のお母さんを探すために10年前軍人に服務したヘマンを捜していく過程で、彼の悲しみ、人間の醜さを古朝鮮時代の有名な溺死事件「公無渡河」と対照させて描く。

2009년 12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

도전 과제
挑戦課題

'음악'은 나의 궁극적인 도전 과제다.
'音楽'は、私の究極的挑戦課題だ。

가장 가슴 뛰는 삶은 결코 통달할 수 없는
一番心を躍らせる人生は、決して到達できない

그 무엇을 좇는 삶이리라. 나는 힌다 선생님을
その何かを追う人生だ。私はヒンダ先生に

만나기 전까지 피아노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해가고 있다고
会う前には、ピアノに関する総てのことを到達していると

생각했다. 나름대로 정상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思った。それなりに頂上に到達していると思った。

하지만 나는 힌다 선생님에게서 정상에 도착하면
しかし、私はヒンダ先生から頂上に到達すれば

그 뒤로 또다른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음을
その後、また他の大きな山が待っていることを

배웠다. 그 산에 대한 '도전' 정신이
学んだ。その山に対する'挑戦'精神が

매일 나를 살아가게 한다.
毎日私を、生きていくようにする。

- 패트릭 헨리 휴스의《나는 가능성이다》중에서 -
- パトリック・ヘンリー・ヒューズの<私は可能性だ>より -

* 누구에게나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 誰にでも挑戦課題があります。

혹시라도 없다면 그건 '심장이 멈춘' 삶입니다.
少しもなければ、それは'心臓が止まった'人生です

가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리고, 몸은 살아있으나
心はずでに冷たくなってしまって、体は生きていても

정신은 잠들어 있는 '꿈이 없는' 인생입니다.
精神は眠っている'夢のない'人生です。

큰 산과도 같은 도전과제를 찾으십시오.
大きな山のような、挑戦課題を探してください。

그리고 이를 위해 매일 도전하십시오.
そして、そのために毎日挑戦してください。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만이
挑戦して、さらに挑戦する人だけ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生きている' 人です。

과제 [課題]

[명사] 課題;問題。

쫓다

[타동사] 追う。

<1> [타동사] (後)ついて行く。

다다르다

[자동사] 至る;着く;到達する;達する;届く;差しかかる。

차갑다

<1> {형용사·ㄷ 불규칙 활용} (物の温度が低くて触れると)冷たい。

<2> {형용사·ㄷ 불규칙 활용} 人情が薄い;よそよそしい。

식다

<1> [자동사] (熱いものが)冷える;さめる。

<2> [자동사] (熱意·情熱などが)さめる;冷える;薄れる;消え去る。

패트릭 헨리 휴스(Patrick Henry Hughes)

2009년 12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1,684조회)

뒷걸음질
後ずさり

삶을 돌이켜보면
人生を振り返ってみれば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たまには失敗したり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間違った選択をしたように見える場合がある。

하지만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 당시로서는
しかし、存在のある次元から見ればその当時は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それが、最善の行動であって、いつの日かそれが

뒷걸음질이 아니라 앞으로 내디딘
後ずさりではなく、前に進んだ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이
歩みだった事実が

밝혀질 것이다.
明らかになるだろう。

- 말로 모건의《무탄트 메시지》중에서 -
- マルコ・モーガンの<ミュータントメッセージ>より -

* 또다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 また1年がくれて行きます。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過ぎ去った1年を振り返ってみれば、惜しく、恥ずかしいこともたくさんあります。

발걸음을 앞으로 성큼성큼 내디뎠어도 모자랐을 판인데
歩みを前につかつかと進んでも足りなかった場面も

오히려 크게 뒷걸음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도 하게
むしろ、大きな後ずさりをする時ではないかという自責をするように

됩니다. 그러나 그럴기 때문에 더욱 새해를 기약하게
なります。しかし、そのためにさらに新年を期すように

됩니다. 뒷걸음질 했던 것이 사실은 앞으로 내디딘
なります。後ずさりしたことが、本当は前に進んだ

발걸음이 되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歩みのように、さらに熱心に生きなければという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誓いを新しくしながら...

뒤:걸음-질

[명사·하다형 자동사] 後ずさりすること。

차원 [次元]

[명사] 次元。

<1> [명사] 数学で一般的な空間の広がり具合を表わす数(直線は一次元, 平面は二次元, 立体は三次元である)。

내:-디디다

<1> [타동사] 踏み出す;進む。

<2> [타동사] (事業などに)踏み出す;着手する;始める。

저물다

[자동사] 暮れる。

<1> [자동사] 夜になる;暗くなる。

되-돌다

[자동사][타동사] 逆方向に回る;回っていたところを逆回りする。

성큼-성큼

[부사] 大股に歩くさま:のっしのっし;つつかかと。

판1

[명사] (あることが行なわれる)場;場面;幕;光景。

자책 [自責]

[명사·하다형 자동사] 自責。

기약 [期約]

[명사·하다형 타동사] 時期をきめて約束すること。

다짐

<1> [명사·하다형 자동사] 念を押すこと;念おし;確約;約束;誓い。

<2> [명사·하다형 자동사] (基礎などを)固めること。

2009년 12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

선달 그믐날의 놀
12月大晦日の夕焼け

다행히도 또 새로운 희망과
幸いにも、また新しい希望と

더 크고 깊은 감회는 되풀이된다.
さらに大きく、深い感懐は繰り返されます。

해가 수평선에 잠기고 나서 잠시 머뭇거리듯
太陽が水平線に降りてから、しばらくたじろぐように

컴컴해지다가, 못내 그냥 꺼져버리기에는 섭섭하다는 듯이
暗くなってから、いつまでもそのまま消えてしまうには、残念なように

그날의 부록처럼, 마지막 악장의 코다처럼, 하늘을
その日の付録のように、最後の楽章のコーダ(coda:最終楽章)のように、空を

장엄하게 밝히는 놀이 피어오르는 날이 있다.
荘厳で、明るくする夕焼けが湧き上がる日がある。

선달 그믐날 그러기를 바란다.
12月の大晦日、そうなるように願う

- 강운구의《시간의 빛》중에서 -
- カン・ウングの〈時間の光〉より -

* 선달 그믐날의 놀.
* 12月大晦日の夕焼け

왠지 머뭇거리며 지는 듯한 그 마지막 놀이 장엄할수록
なぜか、たじろぎながら沈むその最後の夕焼けを、荘厳なほど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아쉬움과 회한이 솟구쳐 목울대까지
胸深い所には、残念さと禍根が喉仏までつきあがって

올라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매듭이 필요합니다.
きます。しかし、総てのことには結びが必要です。

그 매듭은 모든 것의 마침이나 끝이 아닙니다.
その結びは、総てのことの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새로운 시작의 또다른 출발점일 뿐입니다.
新しい始まりの出発点であるだけです。

선달 그믐날 마지막 놀이 지어야
12月大晦日、最後の夕焼けがおわって

비로소 새해가 다시 밝아오듯.
ようやく新年が、また新しく開けるように

선:달

[명사] 陰曆の十二月。

그음-날

[명사] 月の末日;晦日;つごもり。

놀이1

[명사] ‘놀이’의 縮約形:朝焼け;夕焼け。

감:회 [感懷]

[명사] 感懷:心にいだく深い思い。

수평-선 [水平線]

[명사] 水平線。

잠기다1

[자동사] ‘잠그다1’의 受動。

<1> [자동사] (戸などが)閉まる;閉ざされる;(錠などが)掛かる;下りる。

머뭇-거리다

[자동사] ‘머무적거리다’의 縮約形。

머무적-거리다

[자동사] ためらう;もじもじする;ちゅうちよする。

컴컴-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暗い;真っ暗だ。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腹黒い;陰険で欲深い。

못:내

<1> [부사] 忘れずにいつまでも;ずっと。

<2> [부사] 限りなく;果てしなく。

꺼지다1

<1> [자동사] (火・泡などが)消える。

<2> [자동사] 「息が絶える・死ぬ」の俗っぽい語。

부:록 [附録]

[명사] 付録;附録。

<1> [명사] 本文に附属して記録すること, またその記録;ついたり。

장엄 [莊嚴]

[명사:하다형 형용사] 莊嚴;おごそかで重々しいさま。

わき-あがる [沸き上がる]

1. [5단 활용 자동사] 끓어 오르다. 비등하다.

2. [5단 활용 자동사] (구름 등이) 피어 오르다.

듯-하다

<보조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語尾の‘-ㄴ-은-는-ㄹ-을’に付いて, 客観的な推測を表わす語:…のようだ;…そうだ;…らしい。

회:한 [悔恨]

[명사:하다형 타동사] 悔恨;過ちを後悔し残念に思うこと。

쏘구-치다

[자동사][타동사] (勢いよく)跳ね上がる;突き上がる。

목울대 [명사] ..喉仏や、声を上げるおと

발음 [一때]

[명사] 울대뼈나 목청을 이르는 말.

목울대를 울리며 이야기하다

2010년 1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671조회)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福をたくさん作ってください!

이제는
もう

새해 인사를 드려야겠다.
新年の挨拶を差し上げねばなりません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新年には、福をたくさん受けてください!
(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복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幸せはどこかのだれかがくれるものではなく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그렇다면
私を作って、私が受けるもの。そうだったら

새해 인사말을 이렇게 고쳐 해야겠네.
新年の挨拶をこのように直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ね。

새해에는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新年には、福をたくさん作ってください!

- 법정의《새들이 떠나간 숲속은 적막하다》중에서 -
- 法頂の<鳥たちが飛び立った森は寂寞だ>より -

* 흔히 복은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よく福は'うける' こと考えます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誰かから'与えられる' ことを考えます。

그래서 복을 바라고 빌고 기대고 삽니다.
そして、福を望んで、願って、期待して生きます。

그러나 복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しかし福は'帰ってくる' ことです。

스스로 지은 만큼 돌아옵니다.
自ら作るほど帰ってきます。

복을 많이 지어, 흘러넘쳐서
福をたくさん育てて、あふれて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私ではなく、他の人にも

'복의 근원'이 되시길
'福の根源' になることを

바래봅니다.

望みます。

-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
- 新年福をたくさん作ってください -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날을 맞아 210만 아침편지 가족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리다1

<1> [타동사] (物を)差し上げる;上げる。

<2> [타동사] (神仏などに)祈りをささげる;真心をこめる。

고치다

<1> [타동사] (こわれたものを)直す;繕う;修理する;修繕する。

<2> [타동사] (病気を)治す。

적막 [寂寞]

[명사·하다형 형용사] 寂寞。

<1> [명사·하다형 형용사] ひっそりしてものさびしいさま。

흔-히

[부사] よく;多く。

빌:다

<1> [타동사] (神仏に)祈る;祈禱する;願う。

근원 [根源]

[명사] 根源。

<2> [타동사] (許しを)請う;謝る;わびる。

あふれる [溢れる]

1. [하1단 활용 자동사] 가득 차서 넘치다. 흘러 넘치다.

2. [하1단 활용 자동사] (넘칠 만큼) 많다. 【문어형】あふる {하2단 활용}

바래다2

[타동사] 見送る。

20100102.txt

2010년 1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661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정희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ジョンヒ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あらかじめあきらめないで下さい

사물의 이름을
事物の名前を

아는 데서 시작해서
分かることから始まり

점차 한 발작 한 발작 발전하여,
段々一歩、一歩、発展して

나중에는 맨 처음의 따분한 철자법 연습에서
後には、一番初めの退屈な綴字法練習から

셰익스피어의 세계 사이에 가로놓인 광대한 거리를
シェイクスピアの世界の間に横たわる巨大な距離を

횡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横断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 윤문자 역《헬렌켈러 자서전》중에서 -
- ユン・ムンジャ訳<ヘレンケラー自叙伝>より -

* 머리가 나쁘다고, 운이 없다고
* 頭が悪くて、運がなくて

혹은 불가능한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あるいは、不可能な距離と、あらかじめあきらめないで下さい。

무슨일이든지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何事も、初めての酒では腹いっぱいにはなりません。

새해에는 꾸준한 발걸음으로 더 열심히
新年には、着実な歩みで、さらに熱心に

정진하십시오. 올해의 피나는 노력이
精進してください。今年の血のにじむような努力が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いつの日か必ず、美しい果実で

자기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自分の前に近づいて来るでしょう。

좋은 글 주셔서
よい文章をくださった

새해 첫 '독자가 쓰는 아침편지'로 선정되신
新年初めての'読者が書く朝の手紙'に選定された

김정희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キム・ジョンヒさまに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미리

[부사] あらかじめ;前もって。

점:차 [漸次]

[부사] 漸次;物事がゆっくりと変わるようす;だんだん;次第に。

발작 [發作]

[명사·하다형 자동사] 発作。

<1> [명사·하다형 자동사] (病氣など)ある症状が突然起こること。

이에서 한 발작도 나아가지 못했다. → 이-에서

これより一歩も進み得なかった。

발전 [發展]

[명사·하다형 자동사] 発展。

<1> [명사·하다형 자동사] 勢い・力などが伸び広がること。

맨2

[관형사] 最も;一番;最。

따분-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退屈だ;味気ない;興が湧かない;嫌気が差す。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へばってぐったりとなる。

철자-법 [綴字法]

[명사] ⇒ 맞춤법

맞춤-법 [一法]

[명사] 『어법』(ハンゲルの)綴りの法則;綴字法;正書法。

가로-놀이다

<1> [자동사] 横たわる。

<2> [자동사] (処理すべきことが)生じる;存在する;横たわる。

횡단 [横斷]

[명사·하다형 타동사] 横断。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横に断ち切ること。

혹은 あるいは

꾸준-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粘り強い;しんぼう強い;根気がある;終始一貫している。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着実だ;手堅い;堅実である。

정진 [精進]

[명사·하다형 자동사] 精進。

<1> [명사·하다형 자동사] 『불교』雜念を捨てて一心に仏道を修行すること。

피-나다

<1> [명사] 血が出る;出血する。

<2> [명사] '피나게' また '피나는' の形でつかわれて「血がにじむほどつらい思いをして」の意に用いられる。